



# EIAK/EECA 4次會議를 마치고

李 恒 燮  
• 本會 國際部長

## 1. 개 요

1986年 10월부터 시작된 韓國產 브라운관의 生産規模 및 對EC 輸出物量에 대한 EECA 측의 끈질긴 자율 규제 요청에 대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韓國電子工業振興會(EIAK)측과 유럽 電子部品 製造者協會(EECA)간의 회회가 지난 12月 2日 프랑스 파리에서 네번째 회합을 갖기에 이르렀다. 제 4차 회의를 맞는 동안 生産規模에 대한 초과시설 문제에 대하여 몇번의 격론을 벌였으나 제 4차 회의에서 EIAK 측이 제시한 연간 生産規模 2,100만대에 대하여는 격론 없이 넘어갔으나 새로운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는 당초 협의의 대상이었던 브라운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컬러 TV 물량까지도 일괄 규제를 해야 된다고 EECA 측에서 주장하게 되어 마지막 합의단계에서 1988년초 다시 회의를 갖기로 하고 제 4차 회의는 막을 내렸다.

## 2. 問題点

EC내의 電子閔胼機關을 살펴보면 韓國產 電子製品 및 部品과 관련이 있는 機關이 대략 3~4개 기관이 있다.

EECA, EACEM, CECED, CEFIC 등 순수 민간기업의 이익 대변기관으로서 이들의 기능이나 권한이 각기 다를 뿐 아니라 그 본사 소재지 또한 벨지움, 프랑스, 英國 등 여러 국가 수도에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상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ECA 측에서는 韓國產 컬러 TV에 대한 反덤핑 제소를 주도하여 오고있는 EACEM을 대리하여 韓國產 컬러 TV에 대하여도 CPT와 함께 物量規制 협상을 벌이려 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EIAK 측에서 대상업체, 소관기관이 CPT와는 판이하다는 이유에서 CTV/CPT 동시협상 제안을 거부하게 되었으며 CTV에 대한 문제협상을 EACEM측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 3. 第4次 EIAK/EECA 會議 結果 報告

일시: 1987. 12. 2 (수) 10:00~16:30

장소: RTC Compelec本社

가. EECA 會長 人事말

- 한·EC간의 유대관계 설명
- 제 2, 3차 회의를 통하여 결실을 맺지 못한점 遺憾 표시
- 한국이 경제 개발을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해온 점 이해
- 국제 무역의 수지 균형이라는 면에서 Tube문제는 좋은 한국 image에 오점
- 現在 한국의 경제 위치는 많은 서구국가들에게 警告를 발하고 있다. (조선소, 철강 등 서구 산업의 사양화를 재촉)
- 전자의 境遇 미국이나 EC가 전자 산업을 통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하게 되었다. EECA



처EC CPT 물량협의회의 모습

에서 TV 관련자로 발간 예정.

- TV의境遇 EC 역내에서는 (Philips, Tomson, SEL) 유리한立場이었고 세계시장境遇 여기에 파고드는 한국 제품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고 있다.
  - VTR의境遇는 일본, EC, 한국의順이고 TV市場을 잃을 경우 micro-electronics를 잃어버리게 되며 TV는 그래서戰略 상품이 될 수밖에 없고 EC는 이런 관점에서 TV 산업을 보호 육성하겠다는 의지이며 시장 상실을 방관할 수 없다는 뜻이다.
  - 신기술 분야의技術開發에서 뒤진다면 다른 문제일 수 있으나 TV시장을 점령당한다는 것은傍觀할 수 없게 되었다.
  - 이런 상황에서 현재까지妥結을 보지 못하는 Tube와 TV문제를 EACEM과協議, EECA에서 일괄 다루기로 합의를 본 것이다.
  - 최종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 EC Commission과 MTI에서 협의를 하여 결정되어지게 하는 길 밖에 없다고 본다.
- 나. EIAK Leader 人事말
- 事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번 기회에 원만한 타결을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왔다.
  - 韓國의 CPT産業이 EC産業界에 끼친 피해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韓國의 생산품이 그 어느 EC製造者와도 경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物量의 숫자를 가지고 협의를 한다는 것은 쌍방의 주장에 대한 根拠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EIAK側 주장은今年度 수출 물량(実績)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믿는다.
- 방금 CPT와 TV SET를 동시에 협의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지금의 EIAK 대표들은 Set maker가 아니므로 도저히協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다. Philips社에서 輸出入 통계 및 세계 수요, 생산규모에 대한 브리핑

라. EIAK의 資料說明

-資料提示

-보충 설명(本會 李恒燮 국제부장)

-Global Quantity를 타협하려면 CPT의 처EC 總輸入量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는가?

설득력이 없는 EECA의 일방적인 숫자 제시는 동의할 수 없다. 제3차 회의 당시 EIAK에서 주장했던 수치를 되풀이 주장한다.

-EACEM에서 주도적으로 관장하는 TV Set 문제를 EECA와 협의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응할 수 없으며 韓國의 Set maker와 오늘 회의 참석자와는 권한이나 所管事項이 아니므로 할 수 없다.

-TV Set는 현재 2중 3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

反덤핑 提訴, 國別 Quota 규제, PAL License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규제 등이므로 TV set를 물량 협의하려면 EACEM에서 反덤핑 提訴를 철회해야 한다고 보며 該當 기관인 EACEM과 협의할 문제이지 EECA와는 할 수 없다.

마. EECA 會長 提示案

- 1) EACEM으로부터 全權을 위임받았다.
- 2) CPT : 700K

Set : 600K 都合 130만으로 提案한다.

- 3) 合意 期間을 3 年으로 하되('88~'90)
  - 年間 增加率을 減安
  - 規格 制限은 14"~16", 18" 등으로 한다.
  - 統計 數値는 EUROSTAT 輸入 統計 數値로 한다.
- 4) 最終 會議를 1988年 1 月 8 日(金) EIAK에서 指定하는 유럽內 都市로 한다.

바. EIAK 提案

- 1) Set문제는 EIAK와 EACEM의 문제이므로 EACEM에 TLX交信 다음 회의를 합의해 보겠다.
- 2) EECA에서 주장하는 CPT/CTV case 同時 制限案은 EACEM과의 합의 結果에 따른 문제이므로 EECA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본다.
- 3) 今年內 최종 協의제안은 내년초로 해 보겠다.

사. EACEM과 접촉한 結果

12월 4 日 파리 현지 시간 16:00~16:30

통화자: EACEM 사무총장 Oliver Sutton

- 1) EECA에서 韓國 CTV 총 Quota 物量을 50 萬대로 限制하여 가능하다면 합의해도 좋다는 의견을 EECA에 주었을 뿐이며
- 2) 동의하더라도 최종적인 것은 EIAK/EACEM 결정사항임을 通보하였다 하며
- 3) 만약 EIAK에서 현재 계류중인 反덤핑 提訴 철회를 전제로 물량 協의를 해올 경우 年平均 증가율이 합리적이고 제시물량이 합당한 것이면 철회도 가능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 4) 이 모든 문제를 EACEM 대표들과 합의를 보아야 하는 문제이므로 EIAK측에서는 원 하는 내용을 TLX 또는 FAX로 공식 요청 할 경우, 검토하여 회답주겠다는 내용이었음.
- 5) EACEM 자체 회의 소집을 위한 EIAK측 요 청안을 공식 제기해 달라는 요청이었음.

